

경제

Biz & Economy

10 광주일보

제17490호 2006년 7월 4일 화요일

주가	환율	금리
-0.54	-3.80	보합
1,294.61 (코스피지수)	944.90원 (원/달러)	4.92%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89.22	(-1.46)
다우(30일)	11,150.22	(-40.58)
나스닥(30일)	2,172.09	(-2.29)
닛케이	15,571.62	(+66.44)
엔-달러 환율(도쿄 17:00 기준)	114.65엔	(+0.33)
유로 달러 환율	1,277.8달러	(+0.92)
3년만기 회사채	5.20%	(보합)
클레리	4.23%	(+0.02)

중기청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

선정기업 정보화·연구개발·자금 등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현재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해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발굴·육성한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위험·고수익의 벤처기업 외에 마케팅, 조직혁신 등을 통한 기업이윤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혁신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600점 이상(1천점 만점)의 자가진단점수를 획득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 평가기관이 평가를 실시, 700점 이상인 경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600~700점 사이에 포함된 기업은 경영혁신형 잠재기업으로 분류해 정보화·컨설팅·기술·경영연구개발(R&D)·자금 등 집중지원을 통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경영지원과 이정규(062-360-9141).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光銀,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판매

광주은행은 7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전 영업점에서 2006 광주비엔날레의 예매용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예매용 입장권은 행사 당일부터 판매하는 입장권보다 최고 2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성인이 1만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2천원이다.

한편 2006 광주비엔날레는 '열풍 변주곡'을 주제로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65일간 열린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선·후배 여성기업인 '창업 노하우' 공유

선배 여성기업인들이 후배들의 창업과 성공을 위해 '멘토링' 활동에 나선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양인희)에 따르면 예비 창업자나 초기기업에게 창업 성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 성공 노하우, 경영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해 '멘토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인희 지회장은 "중견기업을 예비 창업자나 창업초기 여성기업과 1:1로 연계, 성공적인 창업과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7월 중 멘티와 멘토를 모집하고, 11월까지 그룹별로 다양한 프

중견-예비창업자 연계 경영기법 등 전수

女經協 광주·전남지회 멘토링 활동 나서

로그랩을 운영한 뒤 12월중 멘토링 우수사례를 발간할 방침이다.

멘티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초기 여성기업(1년 미만 여성기업), 중견여성기업(5년 이상 10년 미만 여성기업)을 각 6명씩 모집하며 멘토는 여성CEO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등 실무자로 구성된다.

예비 창업자 프로그램은 개인별 분

석 및 맞춤형 프로세스 구축→유망 아이템 탐색 및 실습 시뮬레이션→성공 기업 탐방→창업성공 사례발표→기업·지역별 네트워크 확립 순으로 진행된다.

창업초기 여성기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매출액 증대방안, 인사·조직 등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된다. 또 중견여성기업의 경우 리더십, 협상 프로세스,

사업다각화 전략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가동된다.

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는 "특히 관련기관 전문가의 강연과 1:1(멘투멘식) 교육을 강화, 여성기업들이 지역발전의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전국 13개 시·도 그룹 및 지역별 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성, 월 1회 모임을 갖고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는 등 정보교류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523-6028~9.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멘토링=고대 그리스의 이타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며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보살피며 달라고 한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Mentor)였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텔레마코스의 친구, 선생님, 상담자가 되어 아들을 잘 돌봐주었다.

여기서 비롯된 멘토링은 현장훈련을 통한 인재육성 활동을 말한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멘토(Mentor)가 구성원(멘티: Mentee)을 1:1로 지도·조언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 성장시키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을 여름 휴가는 농어촌에서...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와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찬인)는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팜스테이 참여농가 대표 등과 함께 최근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여름휴가, 농산어촌에서 보내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전남농협제공)

광주 소매유통 체감경기 '흐림'

백화점 등 3분기 전망지수 98·2분기 112보다 악화

3·4분기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경기가 지난 분기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백화점·할인점 등 광주지역 1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3·4분기 경기전망지수(RBSI, 기준치=100)는 '98'로 나타났다. 이는 1·4분기(110)와 2·4분기(112)는 물론 전국 평균(112)을 훨씬 밑돌았다.

지역별로는 울산(123)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121)·대전(115)·인천(111)·대구(102) 등이 기준치(100)를 웃돌았고, 광주(98)·부산(94)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4분기 체감경기가 지난 분기에 비해 악화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31.3%, 호전된다는 업체는 29.7%, 불변이라는 업체는 39.1%였다.

업체별로는 할인점(125)은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바캉스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며 편의점(113)도 야외 및 야간활동 증가에 기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백화점(100)의 경우 전 분기(167)에 비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환율하락, 유가급등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2·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슈퍼마켓(91)·전자상거래(86)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음성탈루, 변칙 상속·증여자 엄정 단속"

권춘기 신임광주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의식이 살아 숨쉬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8대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권춘기(53) 청장의 각오다.

권 청장은 또 "불성실 납세를 조장하고 있는 위장사업·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자나 음성탈루소득자,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청장은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내실화 ▲실가신고제 등 새로 도입되는 부동산 관련제도의 정착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시행 뒷받침 등을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청의 세정여건을 보

면 제조업 비중이 낮고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소비·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경제기반이 취약하다"면서 "창업·벤처 등 생산적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세정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완주출신인 권 청장은 정무세무장, 광주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제청 부동산세관리국장을 역임했다. 부인 윤혜옥씨와 2남을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관세 월별납부제 中企로 확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오태영)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이하 월별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일부터 월별납부제 승인요건을 완화,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위주로 운영해오던 월별납부제도를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확대, 승인요건을 연간 납세실적 3

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월별납부제도로 승인받으면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제납실적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1천만원 이상이며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으로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여야 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